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

김기홍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hkli47@kli.re.kr)



• 일자리-학력 mismatch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이슈이며, 우리나라는 고학력 일자리 부족으로 고학력 청년의 하향취업이 우려되는 상황임.

- 본고는 KLIPS 1~19차 공개용 자료를 이용하여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과 일자리-학력 mismatch 이행을 분석하고자 함.
- 하향취업은 노동자의 학력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학력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하며, KLIPS에서는 취업자에게 현재 업무가 자신의 학력에 적합한지 설문함.
 - 설문 결과가 노동자의 입직 초기 편익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2009~2016년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중은 약 15%로 같은 기간 동안 유의한 비중 증가는 관측되지 않음. 그러나 하향취업자와 적정취업자 간 임금 격차는 2014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하향취업자는 적정취업자보다 적정취업으로의 이행, 이직, 임금 등에서 낮은 성과를 보임. 이는 하향취업이 명시적이지 않음에도 낙인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시사함.
 - 업무 재배치나 이직을 통해 하향취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1. 분석 배경 및 목적

- 일자리-학력 mismatch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밀접히 관련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학력의 상향평준화로 고학력 청년 실업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고학력 일자리 부족은 또한 고학력 청년의 하향취업을 야기하여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고학력 청년의 하향취업 실태 파악이 긴요함.
- 본고는 KLIPS 1~19차 공개용 자료를 이용하여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과 2009년 당시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2016년 현재 일자리-학력 mismatch 이행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함.

2. 일자리-학력 미스매치

-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는 노동자의 학력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학력과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함.
 - 적정취업: 노동자의 학력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학력과 일치하는 경우
 - 하향취업: 노동자의 학력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학력보다 높은 경우
 - 상향취업: 노동자의 학력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학력보다 낮은 경우
- KLIPS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담당 업무가 자신의 교육수준에 적절한지 설문함.¹⁾
 - 본고는 해당 질문에 “수준이 맞다”고 응답한 경우를 적정취업으로, “수준이 낮은 편이다” 또는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경우를 하향취업으로, 그리고 “수준이 높은 편이다” 또는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경우를 상향취업으로 정의함.

3. 분석 대상

- 본고의 분석 대상은 KLIPS 1~8차 통합표본의 임금노동자 중 (1)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2) 재학 중이 아닌 (3)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4) 신규 취업자임.

〈표 1〉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특성

(단위: 명, 세)

	신규 취업자	평균연령	남성	여성	전문대졸	대졸	석/박사
2009년	414	28.3	220	194	180	214	20
2010년	353	28.1	186	167	161	173	19
2011년	327	28.1	173	154	151	157	19
2012년	285	28.0	143	142	128	145	12
2013년	305	28.6	163	142	124	164	17
2014년	227	28.2	106	121	93	122	12
2015년	285	28.1	139	146	112	156	17
2016년	282	28.2	132	150	118	147	17

자료 : KLIPS 1~19차 공개용 자료 통합표본

- <표 1>에서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평균연령과 성별/학력별 분포가 확인 가능함.
 - 2013년까지 남성이 50% 이상이었으나, 2014년 이후 여성이 50% 이상
 - 2013년 이후 전문대졸 비중이 40% 전후로 감소하고 대졸 비중이 증가

1) 취업자 설문지 나16 문항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4.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중

〈표 2〉 2009~2016년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연도별 일자리-학력 미스매치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적정취업	81.5	75.3	80.2	82.6	78.3	84.7	84.0	83.9
하향취업	14.3	20.7	17.0	13.1	19.4	14.4	13.3	14.9
상향취업	4.2	4.0	2.8	4.3	2.3	0.9	2.7	1.2

자료 : KLI PS 1~19차 공개용 자료 통합표본(횡단면 가중치 적용).

- <표 2>에 따르면, 2009~2016년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중은 약 15%임.
 - 하향취업 비중은 2010년과 2013년의 급증을 제외하면 13~17%
 - 상향취업 비중은 5% 미만이며, 2013년 이후 3% 미만으로 감소
 -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는 주로 하향취업에 기인함을 보여주는 결과
 - 하향취업 증가가 일시적이진 않았으나, 이는 고학력화와 취업난으로 하향취업의 기준이 낮아진 결과일 수 있음에 유의

〈표 3〉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별 월평균임금과 주당 평균노동시간

(단위: 만 원(시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적정취업	181.4 (46.2)	174.2 (45.3)	186.6 (44.9)	178.5 (44.8)	212.3 (45.4)	202.1 (44.5)	197.5 (43.5)	218.5 (44.4)
하향취업	131.1 (48.4)	145.7 (48.7)	138.4 (48.4)	135.4 (48.4)	164.6 (46.7)	131.5 (38.0)	165.3 (42.4)	150.6 (41.5)
상향취업	182.5 (47.4)	180.2 (52.8)	231.1 (48.5)	260.4 (42.8)	181.4 (44.7)	693.0 (41.4)	230.9 (42.1)	153.7 (45.7)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주당 평균노동시간.

자료 : KLI PS 1~19차 공개용 자료 통합표본(횡단면 가중치 적용).

- <표 3>에 따르면, 2009~2016년 하향취업자의 임금은 적정취업자의 약 75%임.
 - 하향취업자의 임금이 2014년과 2016년 적정취업자의 70%이하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후 하향취업자와 적정취업자 간 임금 격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2014년 이후 하향취업자와 적정취업자 간 시간제근로 비중 격차가 확대되면서²⁾ 하향취업자의 노동시간이 적정취업자보다 짧아진 것으로 보임.

2) 적정취업자의 시간제근로 비중은 2009~2016년 3~6%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에 비해, 하향취업자의 시간제근로 비중은 2012년 이후 급증하여 적어도 1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표 4> 2009~2016년 특성별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중

(단위: %)

성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성	15.6	25.9	15.6	14.5	16.5	11.4	15.9	15.4
여성	12.6	14.5	18.5	11.8	23.2	17.0	10.5	14.4
학력								
전문대졸	16.3	20.6	19.2	18.3	27.4	10.5	12.8	15.1
대졸	13.6	21.7	15.5	9.3	15.8	18.3	14.8	15.5
석/박사	4.3	11.0	13.0	10.5	3.9	0.0	0.0	6.6

자료: KLIPS 1~19차 공개용 자료 통합표본(횡단면 가중치 적용).

- <표 4>에서 2009~2016년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중이 성별/학력별로 상이한 추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010년에는 남성과 대졸의, 2013년에는 여성과 전문대졸의 하향취업 비중이 급증했으나, 이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함.
 - 남성의 하향취업 비중이 대체로 여성보다 높는데, 이는 남성의 평균연령이 여성보다 2.5세 높은 것과 연관할 것으로 보임.³⁾
 - 2014년 이후 전문대졸의 하향취업 비중이 대졸보다 낮아진 것은 전문대졸 취업률 상승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임.⁴⁾

<표 5> 2016년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별 학력 분포

(단위: %)

	전문대졸 남성	대졸 남성	석/박사 남성	전문대졸 여성	대졸 여성	석/박사 여성
신규 취업자	39.8	52.8	7.5	45.1	51.4	3.4
적정취업	39.8	51.3	8.9	45.9	50.6	3.4
하향취업	47.0	52.0	1.0	40.4	56.2	3.3
상향취업	0.0	100.0	0.0	-	-	-

자료: KLIPS 1~19차 공개용 자료 통합표본(횡단면 가중치 적용).

- <표 5>에서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별 학력 분포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적정취업의 경우 남성은 석/박사의, 여성은 전문대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하향취업의 경우 남성은 전문대졸의, 여성은 석/박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남성은 전문대졸에서, 여성은 석/박사에서 하향취업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음을 시사

3) 남녀의 평균연령은 각각 29.2세와 26.7세로, 이는 남성의 병역의무와 높은 대졸 비중 때문으로 보임.

4) 교육부, 『20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2017.12.29. 보도자료

〈표 6〉 특성별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별 월평균임금과 주당 평균노동시간

(단위: 만 원(시간))

성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성								
적정취업	200.1 (49.5)	197.3 (46.8)	210.8 (47.0)	208.5 (46.7)	240.3 (46.6)	204.4 (46.8)	227.5 (45.2)	243.9 (47.0)
하향취업	144.0 (50.4)	160.4 (49.7)	159.8 (50.0)	149.6 (51.7)	176.4 (53.6)	188.3 (45.4)	164.8 (42.8)	173.9 (45.1)
임금 비율	72.0	81.3	75.8	71.8	73.4	92.1	72.4	71.3
여성								
적정취업	157.9 (42.2)	151.1 (43.7)	159.1 (42.5)	152.5 (43.3)	174.7 (43.8)	199.9 (42.3)	168.2 (41.9)	199.9 (42.5)
하향취업	110.1 (45.1)	114.9 (46.6)	118.7 (46.9)	119.3 (44.7)	153.8 (40.3)	97.0 (33.5)	166.1 (41.7)	131.4 (38.6)
임금 비율	69.7	76.0	74.6	78.2	88.1	48.5	98.8	65.8
전문대졸								
적정취업	145.8 (46.2)	155.4 (45.2)	159.9 (44.9)	160.1 (46.2)	177.2 (45.1)	159.3 (45.5)	175.8 (44.3)	200.9 (44.9)
하향취업	120.2 (47.8)	117.5 (48.3)	127.5 (47.5)	137.7 (46.8)	162.8 (49.4)	169.0 (44.3)	166.9 (50.5)	149.9 (43.1)
임금 비율	82.5	75.6	79.8	86.0	91.9	106.1	94.9	74.6
대졸								
적정취업	198.0 (46.4)	183.6 (45.7)	209.0 (45.2)	184.7 (44.1)	229.4 (45.7)	227.5 (44.2)	207.6 (43.1)	232.7 (43.8)
하향취업	142.0 (48.8)	166.3 (49.2)	146.2 (48.8)	134.7 (50.4)	164.8 (43.5)	116.8 (35.5)	164.4 (37.6)	149.6 (40.3)
임금 비율	71.7	90.6	70.0	72.9	71.8	51.3	79.2	64.3
석/박사								
적정취업	290.2 (45.0)	237.0 (42.2)	205.7 (42.2)	279.8 (42.4)	243.1 (44.1)	263.3 (40.1)	248.2 (42.8)	225.9 (45.3)
하향취업	105.2 (53.7)	200.0 (45.0)	183.6 (54.5)	100.0 (54.0)	235.5 (49.7)	-	-	186.3 (40.0)
임금 비율	36.3	84.4	89.2	35.7	96.9	-	-	82.5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주당 평균노동시간.

2) 임금 비율은 적정취업자 대비 하향취업자 임금 비율.

자료: KLI PS 1~19차 공개용 자료 통합표본(횡단면 가중치 적용).

• <표 6>에서 성별/학력별 하향취업자와 적정취업자 간 임금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 전문대졸이 대졸보다 하향취업자와 적정취업자 간 임금 격차가 작음.
- 전문대졸의 하향취업자와 적정취업자 간 임금 격차는 2010~2014년 점차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으며, 대졸의 격차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대졸 하향취업자의 임금은 2009~2016년 증감을 반복했을 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적정취업자의 임금도 전문대졸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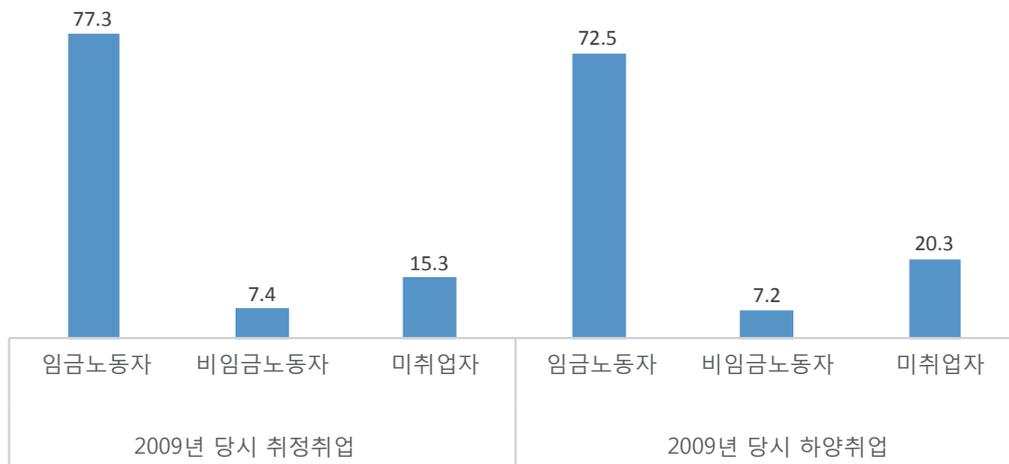
- <표 6>에서 또한 특성별 임금 격차를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별로 확인할 수 있음.
 - 남성 하향취업자의 임금은 여성 적정취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문대졸 적정취업자의 임금은 대졸 하향취업자보다 높고 그 격차도 확대된 반면에, 전문대졸 하향취업자의 임금은 대졸 하향취업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상기의 분석 결과는 대졸의 하향취업과 낮은 임금상승률을 시사함.
 - 대졸 실업률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에 대졸자 공급이 과잉상태임을 보여주는 결과

5.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일자리-학력 미스매치 이행

- 업무 변화나 이직 등으로 인한 일자리-학력 미스매치 이행 분석이 필요함.
 - 상기의 분석 결과는 입직 초기 편의를 포함한 결과이기 때문
 - 2009년 당시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중은 13.8%였으나 2016년 현재 6.4%로 감소
- 이행 분석 대상은 2009년 당시 적정/하향취업자 중 2016년 현재 상태가 확인된 279명임.

[그림 1]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일자리-학력 미스매치 이행

(단위: %)



자료: KLIPS 1~19차 공개용 자료 통합패널(종단면 가중치 적용).

- [그림 1]은 2009년 당시 적정/하향취업자의 2016년 현재 취업 상태를 보여줌.
 - 당시 하향취업자의 72.5%, 적정취업자의 77.3%가 현재 임금노동자
 - 당시 하향취업자의 7.2%, 적정취업자의 7.4%가 현재 비임금노동자
 - 당시 하향취업자의 20.3%, 적정취업자의 15.3%가 현재 미취업자이며 전원 구직 중
 - 하향취업이 취업 상태 유지에 불리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

〈표 7〉 성별/학력별/고용형태별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일자리-학력 미스매치 이행

(단위: %)

2009년 당시	2016년 현재	전체	남성	여성	전문대졸	대졸	석/박사	정규직	비정규직
적정취업	적정취업	93.0	94.7	90.7	90.6	95.0	88.8	94.7	86.7
	하향취업	5.7	3.9	8.2	8.8	3.1	11.2	3.7	13.3
	상향취업	1.3	1.4	1.1	0.6	1.8	0.0	1.6	0.0
하향취업	적정취업	86.8	91.3	75.5	80.2	92.5	100	83.1	100
	하향취업	13.2	8.7	24.5	19.8	7.5	0.0	16.9	0.0
	상향취업	0.0	0.0	0.0	0.0	0.0	0.0	0.0	0.0

주: 1) 임금노동자만 포함한 결과임.

2) 정규직/비정규직은 2009년 당시 고용형태.

자료: KLIPS 1~19차 공개용 자료 통합표본(중단면 가중치 적용).

- <표 7>에 따르면, 2009년 당시 적정/하향취업자 대부분이 2016년 현재 적정취업자이나 일부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하향취업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집단에서 적정취업자가 하향취업자보다 적정취업으로 이행한 비율이 높음.⁵⁾
 - 당시 하향취업자의 86.8%, 적정취업자의 93.0%가 현재 적정취업자
 - 업무 변화나 이직 등을 통한 하향취업 해소가 활발함을 보여주는 결과
 - 여성이 남성보다, 전문대졸이 대졸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하향취업을 유지하거나 적정취업을 유지하지 못한 비율이 높음.
 - 여성은 경력단절, 전문대졸과 비정규직은 낙인효과와 관련한 결과로 보임.

〈표 8〉 이직 경험과 일자리-학력 미스매치 이행

(단위: %)

2009년 당시	2009년 이후 이직 경험		2016년 현재 적정취업	2016년 현재 하향취업	2016년 현재 상향취업
적정취업	없음	47.1	97.1	2.4	0.4
	1번 이상	52.9	88.7	9.1	2.2
하향취업	없음	22.2	94.7	5.3	0.0
	1번 이상	77.8	84.2	15.8	0.0

자료: KLIPS 1~19차 공개용 자료 통합표본(중단면 가중치 적용).

- <표 8>은 이직 경험이 일자리-학력 미스매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 2009년 당시 하향취업자의 77.8%, 적정취업자의 52.9%가 이직을 경험
 - 하향취업자 중 이직을 경험한 자의 84.2%, 이직을 경험하지 않은 자의 97.1%가 적정취업으로 이행
 - 적정취업자 중 이직을 경험한 자의 88.7%, 이직을 경험하지 않은 자의 94.7%가 적정취업으로 이행
 - 적정/하향취업자 모두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이직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적정학력으로 이행한 비율이 낮음.

5) 2009년 당시 석/박사와 비정규직 하향취업자 전원이 적정취업으로 이행했으나, 이는 표본 수가 각각 2명과 9명으로 적어서 나타난 결과로 보임.

- 이직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적정취업을 유지하거나 하향취업을 해소하는 데 유리한 것은 아님을 보여줌.
- 이직 경험 없이 하향취업이 해소되는 것은 숙련 향상으로 고숙련 업무로 재배치되거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인식이 변한 경우 등임.

〈표 9〉 적정/하향취업자의 2009년 당시 일자리 퇴직 사유

(단위: 명(%))

2009년 당시	전체	퇴직하지 않음	비자발적 퇴직	자발적 퇴직
적정취업	234	86(36.8)	20(8.5)	128(54.7)
하향취업	44	9(20.5)	2(4.5)	33(75.0)

주: 1) 응답자의 퇴직연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2) 2009년 당시 적정/하향취업자 중 자발적 퇴직자 1명이 퇴직 사유를 응답하지 않음.

자료: KLIPS 1~19차 공개용 자료 통합표본.

- <표 9>는 2009년 당시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들의 일자리 퇴직 사유를 보여줌.
 - 적정취업자 234명 중 86명, 하향취업자 44명 중 9명이 당시 일자리를 유지
 - 적정취업자가 하향취업자보다 일자리 유지에 유리함을 시사
 - 하향취업자의 자발적 퇴직 비율(75.0%)이 적정취업자보다(54.7%) 높음.
- 하향취업자의 자발적 퇴직 사유가 적정취업자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적정취업자는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퇴직한 경우가 128명 중 45명(30.6%), 하향취업자는 33명 중 9명(22.5%)
 - 하향취업이 명시적이지 않음에도 낙인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
 - 적정취업자는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⁶⁾ 퇴직한 경우가 128명 중 26명(17.7%), 하향취업자는 40명 중 12명(30.0%)

〈표 10〉 일자리-학력 미스매치 이행에 따른 임금과 노동시간 변화

(단위: 만 원, 시간)

	2009년 당시 적정취업	2016년 현재 적정취업	2016년 현재 하향취업	2016년 현재 상향취업
월평균임금	173.3	314.8	221.7	276.9
주당 평균노동시간	46.2	45.8	43.2	58.9
	2009년 당시 하향취업			
월평균임금	126.6	247.9	184.0	-
주당 평균노동시간	50.1	47.5	47.6	-

자료: KLIPS 1~19차 공개용 자료 통합표본(종단면 가중치 적용).

- <표 10>은 일자리-학력 미스매치 이행에 따른 임금과 노동시간의 변화를 보여줌.
 - 하향취업에서 적정취업으로 이행한 경우가 적정취업에서 적정취업으로 이행한 경우보다 2016년 현재 임금이 낮음.
 - 하향취업에서 적정취업으로 이행한 경우가 적정취업에서 하향취업으로 이행한 경우보다 2009년 당시 임금이 낮

6)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일이 임시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근무시간 또는 근무환경이 나빠서”

음에도 2016년 현재 임금은 높음.⁷⁾

6.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고학력 일자리 부족으로 고학력 청년 실업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고학력 청년의 하향취업 역시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KLIPS에서 관측된 2009~2016년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률은 약 15%이며, 2014년 이후 하향취업자와 적정취업자 간 임금 격차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이후 대졸의 하향취업 비중이 전문대졸보다 높아졌으며, 대졸 하향취업자의 임금은 2009~2016년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KLIPS에서 조사되는 일자리-학력 미스매치는 응답자의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본고의 이행 분석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고학력 청년 신규 취업자의 하향취업 비중은 13.8%였으나 2016년 현재 6.4%로 감소함.
- 하향취업자가 적정취업자보다 취업 상태를 유지하거나 적정취업으로 이행한 비율이 낮고, 여성이 남성보다, 전문대졸이 대졸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적정취업으로의 이행한 비율이 높음.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학력/고용형태에 대한 낙인효과 등의 결과로 보임.
- 하향취업자는 적정취업자보다 이직을 경험한 후 적정취업으로 이행한 비율이 낮았으며,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기 위해 퇴직한 비율도 낮았음. 또한 하향취업자가 적정취업자보다 2009년 당시 임금과 이후 임금상승률이 모두 낮았음. 이는 하향취업이 명시적이지 않음에도 낙인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하향취업의 유의한 증가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이는 취업자의 인식 변화 때문일 수 있음. 또한 하향취업자가 적정취업보다 입직 이후 성과가 좋지 못한 것을 간과할 수 없으며, 업무 재배치나 이직을 통해 하향취업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함. 특히 하향취업이 학력 등과 마찬가지로 낙인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하향취업을 포함한 청년고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1차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학교육 수요는 증가했으나 이를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해 발생한 것임. 이러한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하려면 학력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파악하여 조기진로 설정을 지원하는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내 이행을 지원하는 자격제도 등을 정비해야 함.

7) 전자의 2009~2016년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0.1%로 후자는 3.6%.

※ 본 「KLI 패널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